 게임으로 전환 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 시나리오는 도표 및 이미지 등 활용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하고, 신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관련 정보는 기재 불가

 너무 투머치한 정보x 간단 요약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제공

 영상과 게임에 둘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대사 작성

 역사에 사료들을 참고하여 작성

 영상진행 시간은 직접 컨트롤 가능

* 역사적 사실 + 감미
* VR영상이다 보니 대화의 비중이 낮다.
* 영화 ‘포화속으로’
* 인간 ‘이순신’ 보다 **‘명량해전’에 집중**.. VR 플랫폼

**‘이순신 명량해전’ 시나리오**

#1 시작 (0:00~1:30) in 방 안 

주인공은 상자안에 있는 오래된 동전과 지폐를 발견한다.

(**카메라 가운데 ‘돈’을 클로즈업**)상자 속에서 동전과 지폐를 꺼낸다.

자세히 보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돈이다.

주인공은 돈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녹이 슨 동전의 외부(100원 동전)를 옷소매로 문질러 본다.

**(주변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며 카메라도 점점 어두워진다.)**

**(눈꺼풀을 떴다가 감았다 하니 흐렸던 시점이 돌아온다.)**

#2 이순신 장군\_ (**텍스트 위주**)**배경설명** (1:30~3:00) 검은 바탕에 텍스트

* 먹 번짐 효과의 이미지 위에 ‘이순신 명량해전’ 텍스트를 보여주며 시작
* 애니메이션 통해 알파 값 조절 **Fade in/Fade out** 구현



**충무공 이순신**

**이야기 시작**

(**긴박함을 주는 짧게 끊어서 치는 북소리**)

내레이션: 1592년 임진년 왜군의 조선 침공으로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

1년 뒤 명나라와 일본 간 평화 협상이 열렸으나 1597년 협상은 결렬되고

일본군은 또다시 조선에 침공해 원균이 이끄는 수군을 박살 냄으로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된다.

이에 선조는 백의종군한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시켰으나

그에게 주어진 배는 13척의 판옥선과 전투가 불가능한 32척의 작은 초탐선 뿐이었다.

#3 이순신 장군\_ 명량해전 (3:00~3:30) in 바다 위 (전라도 해남과 진도 사이 명량 수도)



* **: 플레이어 위치(전쟁의 중심)**

(**짧고 굵게 들리는 북소리**)

(**텍스트&&음성&&이미지**//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충무공 이순신)

눈을 떠보니 목재 바닥이 보인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몸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다.

주변에는 거북의 머리를 하며 무장을 한 2층 판옥선들이 보인다.

천둥 같은 북소리와 함께 아군 병사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4 이순신 장군\_ 명량해전 시작

**전투를 위해 진출하는 모습**

대장선을 포함한 13척의 함선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 뒤로 작은 초탐선들이 따라가기 시작한다.

왜구들의 병력의 규모는 130여 척의 배들이 아군들을 에워싸가고 있다.

병사들의 얼굴을 보니 어마어마한 적 규모에 압도되어 겁을 상당히 먹어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왜구들의 배들이 점차 포위하며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낯빛은 더욱 어두워졌다.

병사들의 사기가 낮아지는 것을 느낀 이순신은 홀로 전속력으로 적을 향해 전진 사격을 하며 시작이 되었다.

무모하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의 함선은 왜선들을 줄줄이 격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패기와는 다르게 주변 장군들은 지레 겁을 먹어 후방에서 방관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장군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호통을 치며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유리한 물살을 바탕으로 왜군들은 백병전하기 위해 접선을 시도하였으나 조선 수군은 일정 간격을 두며 사격을 해 상당한 양의 일본 수군을 침몰시켰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물살이 역으로 빨라지면서 일본 수군은 좁은 해협으로 밀집되어 거의 멈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자 조선 수군은 밀집된 일본 수군들을 일제히 화포공격으로 물리쳤고 일본 수군의 총사령관 또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더는 버티지 못하고 퇴각함으로써 전투는 종료되었다.

무과시험장 주변에 휘날리는 군기와 천막들, 활 쏘는 모습, 표적의 모양 등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어 역사적 자료 가치가 특별히 더 높습니다. 또 이 그림은 기록화의 특징

일본은 주로 수송선 330척, 빠르기만 한 배

조선은 화포가 달린 판옥선2층 (20개 이상의 화포) 이 판옥선러 등껍질을 쌓아 왜구가 타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머리쪽에 포를 달아